

<http://doi.org/10.5253/kpac.2025.52.5>

## 김약련(金若鍊)의 『감은록(感恩錄)』 연구

호소운\*

### 차 례

1. 서론
2. 김약련 한시 개관
3. 『감은록』 소재 한시의 양상 및 의의
4. 결론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두암 김약련의 한시 문학, 특히 유배 기간에서 창작한 한시 작품의 묶음인 『감은록』을 중심으로 분석해 그 시적 양상과 의의를 도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약련 전체 한시의 현황을 개관하였다. 김약련의 전체 한시 작품은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적다. 더불어 김약련은 장편시(오언배울)를 즐겨 지었으며, 주제적으로는 吟風詠月이나 詠物의 작품이 전혀 없고, 자신에게 의미를 지닌 사건, 일자, 인물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감은록』의 경우에는 최초로 별도의 책자로 존재하였으며, 창작의 주목적은 유배를 오간 전 말을 서술하고 임금의 은혜를 칭송하는 것이었다. 『감은록』 소재 한시 작품의 첫째 양상은 김약련의 忠孝意識이 강렬하게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포함된 작품은 기존 김약련 연구에서 주목한 傳 작품에 나타난 忠孝意識보다 먼저 창작된 것이며, 이 작품들의 충효의식이 이후 창작된 傳 작품군에서 忠孝烈로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김약련은 『감은록』에서 꿈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등장시켜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서술 방법을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사용하였다. 이는 짙막한 시구에서 김약련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감은록』에서 『맹자』에 대한 숭배의식이 드러내고 있으며, 『맹자』의 문답형 문체까지 한시에서 수용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김약련이 유배에서의 고통 해소 및 사대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맹자』를 정신적 지지처와 현실의 해결안으로 여긴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맹자』의 문답형 문체를 통해, 한시에서 대화체를 구현하고 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장면의 긴장감을 더해줄 수 있다. 넷째, 『감은록』 소재 한시는 제목을 파격적으로 길게 붙였고, 시의 형식과 작품 수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신의 시를 읽을 독자의 존재를 인식한 행동이며, 제목을 정보를 담은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축소하는 동시에 작품의 사상 감정을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한편, 『감은록』 제목 상의 특성은 김약련의 다른 한시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약련이 유배라는 비일상적 체험,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인해 생긴 여러 所懐를 타자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김약련, 감은록, 한시, 유배, 장편시, 충효의식, 공간의식, 숭배의식

## 1. 서론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은 경상북도 영주에 거주했던 조선후기 문신으로, 자는 유성(幼成), 호는 두암(斗庵) 또는 인수(忍叟)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도량(度量)이 있었으며, 일을 헤아리는 것이 늘 남의 생각을 뛰어넘었다. 일찍 학식과 재주로 두각을 나타내어 영남권에 이름이 났다. 대내적으로는 예안 김씨 문호(門戶)의 장래 희망, 대외적으로는 영남의 영수(領袖)로 여긴 바가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과거 급제 길은 당시 농후한 과폐(科弊) 분위기로 인해 순탄치 못하였다. 1774년 45세의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야 한 해에 연방(蓮榜)과 계방(桂榜)을 연이어 붙고, 이로써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견실한 학식의 힘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출사한 지 바로 2년 후, 1776년 8월 6일에 이응원(李應元)·이도현

(李道顯) 부자의 「사도세자신원소(思悼世子伸冤疏)」라는 상소문에 역을하게 연루되어 국문(鞫問) 당하고 평안북도 삭주(朔州)로 유배되었다.<sup>1)</sup> 이듬해 삭주에서 약 6개월의 유배 생활을 보내다 사면(赦免)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16년 동안 연거하여 학문에 더욱 정진(精進)하는 동시에, 동중(洞中) 교육과 후학 육성에 힘썼다. 1793년 김약련 63세 때, 겨우 정조의 은혜와 특명이 여러 차례로 김약련에게 내려와 서울로 불러들였다. 이때부터 선후 5년간에 병조좌랑(兵曹佐郎), 지평(持平), 헌납(獻納), 정언(正言) 등에 제수되었으나, 일일이 사직서를 올려 귀향했고 거기서 여생을 끝마쳤다.<sup>2)</sup>

이처럼 김약련은 뛰어난 학식과 정치적 포부를 가득 가지고 있었으나, 시운이 나빠 모두 펼쳐 나가지 못했던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약련이 유배라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겪고 나서 16년 동안 영남에서만 은거 생활을 보낸 점, 누차로 관직을 사양하다 생을 마친 점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 즉, 그에게 6개

1) 이 해는 정조가 즉위한 해로, 정조의 왕권은 견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조는 흥인한 정후겸 등 척신세력 존재의 위협을 척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영조의 임오의리를 어기지 않은 범위에서 정조가 임오화변을 선동한 자들 단죄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움직임으로 당시 정계에서 비교적 소외된 소론 및 영남 남인 세력은 사도세자를 위한 신원 및 추숭을 추진해오던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 상소문의 결과는 소를 올린 직접 관계자들이 정조의 친국을 받고 처형된 것으로 끝을 맺었다. 그 이유는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처분을 천리, 자신이 애통하는 것을 사심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않은 시국에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일체 언급은 오히려 영조의 의리를 뒤집는 혐의와 정치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원소를 올린 것은 비록 정조 마음과 통했지만, 시국과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한 것이었다. 강지혜, 「정조 즉위년 소론의 사도세자 신원소 제기와 정조의 대응 -『친국일기(親鞠日記)』의 심문기록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1호, 전북사학회, 2017, 65~79쪽 참조.

김약련의 유배도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응원과 이도현 부자가 신원소를 올리기에 전에 김약련과 만나 소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김약련이 바로 말렸으나 결국은 노론 쪽의 시도에서 연루된 것이다. 정조는 많은 인명의 희생을 원하지 않아 직접 소를 올린 자만 처형한 것이고, 간접으로 관련된 김약련을 처형을 벗어나게 유배형으로 구해 준 것이다.

2) 여기까지 『두암집(斗庵集)』 附錄 681~685쪽에 해당하는 「家狀」을 참고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두암집』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장본을 영인 저본으로 한 『한국문집총간』속의 『두암집(斗庵集)』이며, 이로부터 논의 상의 편리를 위해 인용할 때 이 책의 쪽수로 표시한다.

월 가까이 된 이 유배 생활은 분명히 일정한 의미를 지닌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약련은 확실히 이를 특별히 여겨, 한시를 표출 수단으로 선택해 유배길에서 23제 31수의 작품을 창작했다. 이들 작품을 매우 중요시한 까닭인지 록(錄)의 형식을 취해 ‘감은록(感恩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 강조하였다.<sup>3)</sup> 이외에, 행장, 가장과 묘명의 곳곳에서 유배 사건의 상세한 전말과 『감은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꽤나 많은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김약련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감은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김약련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문산문<sup>4)</sup>과 국문시가<sup>5)</sup>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한문산문의 경우에는 주로 전(傳)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의식적 지향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열녀전, 동물전류 작품들은 사회적 약자를 업전 대상으로 하여 충(忠), 효(孝), 열(烈)이라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잘 드러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문시가의 경우에는 김약련의 육가형 시조 작품인

- 3) 실제로 『두암집』 권1만을 살펴봐도 『감은록』을 강조하고 특별히 여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1 소재 내용은 모두 김약련의 한시 작품이고, 맨 앞부분 ‘시(詩)’라는 대목 아래에 그가 평생 걸쳐 쓴 한시 작품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따로 분류된 『감은록』의 작품들이다.
- 4) 권영채, 「斗庵 金若鍊의 生涯와 散文世界 - 「傳」 창작을 통한 ‘義理’ 意識의 形象化를 중심으로,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2002 ; 이종호, 『열녀와 의리-조선 후기 안동권 열녀전의 이해』, 북코리아, 2012 ; 김경미, 「관계로서의 동물, 동물의 문학적 재현 - 조선 후기 ‘동물전(動物傳)’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 한의승, 「『斗庵集』·『斗庵叟隨錄』·『斗庵題詠』을 통한 斗庵 金若鍊의 산문 연구(1) -傳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7권, 한국한문학회, 2023 등.
- 5) 백두현, 「두암(斗菴) 김약련(金若鍊)의 한글 가사와 시조 - 노부탄(老婦歎), 담부사(答婦詞), 과폐탄(科弊歎), 소학가(小學歌), 육가(六歌), 『어문론총』 6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손대현, 「『두암제영(斗庵題詠)』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사적 가치, 『어문론총』 6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손대현, 「〈小學歌〉의 『小學』 수용과 문학적 의미, 『어문학』 135집, 한국어문학회, 2017 ; 이상원, 「〈두암육가〉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 이상원, 「조선 후기 향촌지식인의 삶과 부부의 기억 - 순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련의 담부사, 『한국시가문화연구』 42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 손대현, 「〈科弊歎〉의 서술 양상과 문학적 가치, 『語文學』 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 박지애, 「내방가사를 통한 여성의 자기표현과 부부관계의 구성 - 『두암제영』 소재 노부탄과 담부사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 4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등.

<두암육가(斗庵六歌)>, 가사 작품 <노부탄(老婦歎)>, <답부사(答婦詞)> 등을 비롯한 몇 편 작품에 대해 각각의 성격을 분석하고 위상이나 의의를 살펴본 것들이 주로 이룬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김약련 문학 연구에서 현재까지 한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수행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김약련에게 큰 의미를 지닌 『감은록』부터 순차적으로 그의 한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김약련의 한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정리한 후, 『감은록』에 나타난 작품들의 시적 양상과 의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김약련 한시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김약련의 의식지향과 문예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김약련 한시 개관

김약련의 한시 작품 상황을 파악하려면 『두암집』 권1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김약련의 모든 한시 작품이 권1에 실려 있는 까닭이다. 물론 이본의 경우에도 한시 작품이 실려 있으나, 대개 『두암집』 권1에 들어간 작품들이다. 권1에 있는 한시 작품은 총 79題 107수, 그가 창작한 한시 작품이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체 한시 작품의 구성 체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詩, 50題 67수:
  - 1) 『감은록』 外 한시 작품, 27題 36수(511~515쪽)
  - 2) 『감은록』, 23題 31수(515~518쪽)<sup>6)</sup>
- ② 輓, 27題 32수(518~526쪽)
- ③ 誄辭, 2篇 8수(526쪽)

6) 이하부터 작품을 인용할 때 쪽수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 1) 『감은록』 외 작품

『감은록』外 27題 36수의 한시 작품은, 오언절구 1題 8수, 오언율시 3題 3수, 오언배율 5題 5수(각각 60, 160, 300, 340, 360자), 칠언절구 3題 3수, 칠언율시 14題 16수, 雜言詩 1題 1수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작품 수록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 『감은록』外 한시 작품의 목록

| 순번 | 제목                        | 율격   | 순번 | 제목                            | 율격   |
|----|---------------------------|------|----|-------------------------------|------|
| 1  | 客中阻雨 將歸又雨(160자)           | 오언배율 | 15 | 鵝鵝歎(360자)                     | 오언배율 |
| 2  | 立春 次幼濯                    | 칠언율시 | 16 | 室人回甲日 書示兒曹(340자)              | 오언배율 |
| 3  | 壽翁有立春詩 步其韻以自嘲             | 칠언율시 | 17 | 詠懷 示諸兒(2수)                    | 칠언율시 |
| 4  | 洪叙仲溪亭韻                    | 칠언율시 | 18 | 騎牛赴金成之 慶席 途上 戲吟(14구)          | 雜言   |
| 5  | 李參奉丈江亭韻                   | 오언율시 | 19 | 次趙承宣景雲氏醉席韻                    | 칠언율시 |
| 6  | 次朴民瞻                      | 오언율시 | 20 | 李善則藏其先祖熙寧君琴 多受先輩詩帖 要余步其韻 構拙以呈 | 칠언율시 |
| 7  | 除夜 次滄浪子                   | 칠언율시 | 21 | 送忠兒寓安巖                        | 칠언율시 |
| 8  | 上元看月 次伯氏韻                 | 칠언율시 | 22 | 贈別松京宗人 仍念昔年夏 過仙庄 更倍悵然 遂吟一律    | 칠언율시 |
| 9  | 庵中八詠(8수)                  | 오언절구 | 23 | 伏賡御賜詩韻                        | 칠언절구 |
| 10 | 讀退溪先生文集 有立春詩 今日乃立春節也 感而次之 | 칠언절구 | 24 | 次贈李甥(60자)                     | 오언배율 |
| 11 | 雇奴告去 歎賦一律                 | 오언율시 | 25 | 次幼顏木假山韻                       | 칠언율시 |
| 12 | 甲午臘月 鎖直堂后 今來 追思 便成一夢 感吟四韻 | 칠언율시 | 26 | 壬戌春帖                          | 칠언율시 |
| 13 | 糟丘懷舊                      | 칠언율시 | 27 | 醉次醉狂軒詩軸韻                      | 칠언절구 |
| 14 | 己酉春帖(300자)                | 오언배율 |    |                               |      |

위를 보면, 『감은록』을 제외하고 평생 동안 썼던 한시 중에서 김약련이 제일 선호했던 시의 형식은 칠언율시와 오언배율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제목을 통틀어 살핀 후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었는데, 김약련은 음풍영월(吟風詠月)이나

영물(詠物)에 속한 부류의 시작(詩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上元看月 次伯氏韻> 같은 작품들의 제목을 얼핏 보면 음풍영월 유형의 작품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달이라는 물상(物象)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음풍영월의 내용보다 주로 어느 사건, 특별한 날, 친분을 맺은 사람의 시를 차운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②輓에는 총 27題 32수의 輓詩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 오언절구 1題 6수, 오언율시 3題 3수, 오언배율 8題 8수(300자\*2수, 360, 380, 440, 500, 540, 600자 각 1수), 칠언절구 1題 1수, 칠언율시 9題 9수, 칠언배율 4題 4수(각각 112, 140, 308, 350자), 雜言詩 1題 1수(330자)로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작품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2 輓에 속하는 작품의 목록

| 순번 | 제목             | 율격             | 순번 | 제목           | 율격   |
|----|----------------|----------------|----|--------------|------|
| 1  | 金威叔成仲氏輓(380자)  | 오언배율           | 15 | 哭宗燧(308자)    | 칠언배율 |
| 2  | 權奇玉輓           | 칠언절구           | 16 | 趙承宣遠仲輓(440자) | 오언배율 |
| 3  | 趙叔章輓(300자)     | 오언배율           | 17 | 金兢之輓(350자)   | 칠언배율 |
| 4  | 趙景得輓           | 오언배율<br>(360자) | 18 | 裴綱汝輓         | 칠언율시 |
| 5  | 成君輓            | 칠언배율           | 19 | 哭金姪伯高(6수)    | 오언절구 |
| 6  | 再從叔雙巖公輓詞(500자) | 오언배율           | 20 | 深广金公叔輓       | 칠언율시 |
| 7  | 金汝豪輓           | 오언율시           | 21 | 后山李學甫輓       | 칠언율시 |
| 8  | 姊婿李上舍輓         | 칠언율시           | 22 | 朴麟瑞輓         | 오언율시 |
| 9  | 哭滄浪子(300자)     | 오언배율           | 23 | 文肅公蔡相國輓      | 칠언율시 |
| 10 | 哭從弟得翁(330자)    | 雜言             | 24 | 哭族弟允精        | 오언율시 |
| 11 | 李校理暉道輓(540자)   | 오언배율           | 25 | 金僉樞定之輓       | 칠언율시 |
| 12 | 李同樞輓           | 칠언율시           | 26 | 海左丁判書輓       | 칠언율시 |
| 13 | 金鼎揚輓(112자)     | 칠언배율           | 27 | 哭素庵(600자)    | 오언배율 |
| 14 | 姜丈輓            | 칠언율시           |    |              |      |

김약련이 오언과 칠언율시와 오언배율을 선호한 점은 ②輓에서도 재확인

된다. 앞서 살펴본 한시 작품에 비해 작품의 길이가 한층 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0자 이상의 배율시를 지을 때는, 오언으로 창작하는 것을 더욱 선호했음이 발견됐다. 한편, ②輓에 속하는 작품들도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③誄辭에는 <內從叔東巖柳公誄文>과 <從姪婦安東權氏誄文>이 수록되어 있다. <內從叔東巖柳公誄文>은 서문이 없고 20구의 사언시만 실려 있다. <從姪婦安東權氏誄文>은 서문과 운문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운문 부분은 7章體 4언시로 되어 있으며, 한 章에 12구 48자로 총 336자나 있다. 특별한 점은 詩經體를 흉내 내어 창작했다는 점이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誄를 남긴 작가는 모두 42인, 작품 수는 86편<sup>7)</sup>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위를 종합해 보면, 김약련이 비록 한평생을 걸쳐 지은 한시 작품이 적으나, 그중에서 장편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②輓에서 장편으로 지은 작품이 가장 잘 보인다. 장편시의 창작에서는 오언배율과 칠언배율을 함께 사용했으나, 배율을 더 길게 지으려고 할 때는 칠언보다 오언을 채택하였다. 더불어 그의 한시 창작에 있어 음풍영월이나 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없으며, 그 대신에 주로 자신에게 의미를 지닌 사건, 날, 사람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③誄辭에 속하는 두 편의 작품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 2) 『감은록』

최초의 『감은록』은 별도의 책자 형식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감은록』의 첫 번째 작품 겸 제시(題詩)의 성격을 지닌 「題感恩錄」이라는 시의 제목 아래, ‘以下出感恩錄’이라는 세주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sup>8)</sup> 다른 하나는 <가장>에서 “적소(謫所)에 있을 때, ‘감은록’이라

7) 김윤조, 「뇌(誄)의 문체적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양상」, 『대동한문학』 32권, 대동한문화회, 2010, 117쪽.

8) 『두암집』 515쪽.

는 한 편을 지어 왕래의 전말을 서술하였다9)라고 한 점이다.

한편, 『감은록』의 ‘感恩’을 보면, ‘恩’은 명백하게 聖恩, 임금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 중점은 ‘感’에 달려 있다. 『감은록』의 실제 작품들을 참고할 때, ‘감’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성은에 대한 감사, 다른 하나는 성은에 대한 느낌이 있어 느낀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廣雅·釋詁三』에 “錄, 記之具也”를 참고하면, ‘感恩錄’이라는 것은 결국 성은(정조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느껴진 바의 상세함에 대해 기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감은록』은 김약련이 유배 생활 속에서 임금에게 감사하거나 유배 생활 중에 일어난 느낌의 상세함을 기록한 시들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약련은 유배를 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무슨 연유로 오히려 성은에 대한 지극한 감사를 나타낸 것일까? 그것은 당시 노론 측이 김약련에게 대역죄인으로 죄명을 씌워 처형하려고 계사(啓事)를 채삼 올렸는데도 정조가 여러 차례 유하하지 않고 김약련을 극형 당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게 구해줬기 때문이다.10) 비록 유배형은 일반적으로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애에 있어 오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겠지만, 김약련에게는 그 유배형이 임금의 은혜를 입어 다행히 살아남게 된 소중한 경험이였다. 그러므로 김약련은 유배라는 형벌을 은혜로 가슴에 새겨 귀양살이를 보냈으며, 그 속에서 유배 생활을 절실히 음미해 『감은록』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그 주목적을 임금의 은혜를 칭송하는 것으로 삼았다.11)

『감은록』에 수록된 한시 작품의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가장」, 『두암집』 683쪽. “及在謫所, 作感恩錄一編, 以叙往來顛末”

10) 「가장」, 『두암집』 683쪽. “且其當初定配時, 三司連發推鞠之啓, 而自上特命停罷, 及其赦命之下, 又文章固爭, 而終不允.” 이외에, 권영채, 「斗庵 金若鍊의生涯와 散文世界 - 「傳」 창작을 통한 「義理」意識의 形象化를 중심으로」, 14~23쪽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 상소문 사건 및 노론 측의 압박으로 김약련의 위험한 경지를 상세하게 소개한 바가 있다.

11) 「墓銘」, 『두암집』, 688쪽. “又作感恩錄, 以頌天恩.”

표3 『감은록』의 작품 구성과 내용

| 순번 | 제목                             | 율격            | 경전/전고        | 내용                         |
|----|--------------------------------|---------------|--------------|----------------------------|
| 1  | 題感恩錄 <sup>2)</sup>             | 七言絶句*2        | -            | 충군연주                       |
| 2  | 禁獄誦鄒書有感 <sup>3)</sup>          | 七言絶句*2        | 『孟子』         | 義仁, 忠孝에 대한 강조              |
| 3  | 宿開城                            | 五言律詩*1        | -            | 忠孝 강조 및 신세 한탄              |
| 4  | 望見練光亭浮碧樓                       | 五言律詩*2        | -            | 누정 묘사와 죄인의 守分              |
| 5  | 獨坐無聊吟成一律                       | 五言律詩*1        | -            | 무료한 하루                     |
| 6  | 夜夢歸家 朝起感吟                      | 七言律詩*1        | 『莊子』<br>『周易』 | 꿈과 현실, 영남에 대한 그리움          |
| 7  | 讀孟子(240자)                      | 五言排律*1        | 『孟子』         | 『맹자』 추앙, 사대부로서의 굳건한 지조와 자세 |
| 8  | 坐念夜夢 吟成二律                      | 五言律詩*2        | -            | 꿈, 만형과 숙부에 향한 그리움          |
| 9  | 思家伴不至 二首                       | 五言絶句*2        | 『詩經』         | 만형에 대한 그리움                 |
| 10 | 孤坐一室 消日無資 吟成一律一絶               | 五言律詩+<br>五言絶句 | -            | 외로움과 무료함 한탄하다 자신을 권면함      |
| 11 | 晨起詠懷                           | 七言律詩*1        | 『논어』<br>『맹자』 | 신세 한탄, 군은, 그리움             |
| 12 | 夜見燈花 感吟一絶                      | 五言絶句*1        | -            | 임금 사모                      |
| 13 | 立春夜無寐 感成一律                     | 七言律詩*1        | 『後漢書』        | 임금 칭송, 만형 그리움              |
| 14 | 除夕在明 客懷倍切 遂吟一律                 | 七言律詩*1        | -            | 나그네의 시름                    |
| 15 | 朝坐詠懷 步古詩韻                      | 七言律詩*1        | 굴원, 정이의 전고   | 지조 견지, 집안 그리움              |
| 16 | 來住塞館 已十有三旬 而無夜不夢家鄉 可知有思必夢 感吟一律 | 七言律詩*1        | 두보의 전고       | 꿈과 현실, 형제 그리움              |
| 17 | 坐念家事 吟成一律                      | 七言律詩*1        | -            | 妻子 그리움, 반성 자세              |
| 18 | 聞賑關到府 喜吟一絶                     | 五言絶句*1        | 『老子』         | 성은 칭송, 나라 축원               |

| 순번 | 제목  | 율격     | 경전/전고 | 내용                        |
|----|---|--------|-------|---------------------------|
| 19 | 蒙赦將歸 謝諸生來質<br>二首                          | 七言絕句*2 | 『詩經』  | 우정, 학문 권면                 |
| 20 | 城上一條路 是余累月暢<br>鬱之地也 將歸不可不一<br>登 遂往見之 爲吟一絕 | 五言絕句*1 | -     | 울적함을 풀어내던 길에 대<br>한 이별 인사 |
| 21 | 姜生最初相知 而中間貽<br>阻 今方還鄉 而未卽相<br>面 故吟送一絕     | 七言絕句*1 | -     | 우정 담은 이별시                 |
| 22 | 阻雪龜城天陽村 吟成一<br>絕                          | 七言絕句*1 | -     | 나그네의 심정 토로                |
| 23 | 登鍊光亭 二首                                   | 七言絕句*2 | -     | 누정 묘사, 고금의 흥망성쇠           |

총 23제 31수의 작품은 오언시와 칠언시로 구성되어 있다. 오언시는 총 14수로, 구체적으로 오언절구 6수, 오언율시 7수, 오언배율 1수(240자)다. 칠언시는 총 17수로, 칠언절구 10수, 칠언율시 7수가 있다. 이를 보면, 『감은록』에서는 오언과 칠언, 절구와 율시가 비교적 고르게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3제 작품에서 7번 <讀孟子>는 『맹자』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작품으로 유일한 장편이다.

한편, 구조적 측면에서 작품의 배열 순서는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1번 <題感恩錄>의 題詩로서의 통괄적 성격을 고려해 제외하면,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禁獄(2번), 護送 도중(3~4번), 謫所 정착(5~18번), 사면 받고 이별 준비(19~21번), 歸鄉 도중(22~23번)’이 그것이다.

12) <가장>, 『두암집』 683쪽. “是故其繫禁獄詩, 口占一絕曰, 欺心則是欺君親, 生不如亡豈曰人, 頭上青天紗不隔, 昭昭日月照微臣, 及在謫所…題一絕於卷首曰, 愛君心赤質神明, 夷險何曾二此誠, 得保微軀由聖德, 惟將銘感效忠貞.”를 참고하면, 실제 절구 두 수로 엮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禁獄에서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謫所에서 지은 것이다.

13) 문집에서 다시 한 줄로 시작하고 간격을 두는 것을 보면, 사실상 두 수로 엮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감은록』 소재 한시의 양상 및 의의

#### 1) 『감은록』 소재 한시에 나타난 忠孝의식과 그 의의

『감은록』 소재 한시 작품들을 살펴봤을 때, 동시에 몇 가지의 사상 감정이 섞여 있는 복합적 면모가 보인다. 논의 상의 편리를 위해 그 작품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잡아 이를 중심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김약련의 한문 전 작품에서 忠·孝·烈 이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강조되어 왔다.<sup>14)</sup> 忠 이념을 개 이야기로 담은 작품인 <忠狗傳>, 여성을 입전대상으로 선정하고 孝 이념을 담은 작품인 <孝婦傳>이 그 전형적 대표 작품이다. 그런데 『감은록』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烈 이념을 제외한, 忠·孝 의식을 표출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다시 忠 의식만 담은 작품, 忠과 孝 의식을 아울러 동시에 담은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忠 의식만 표출한 작품을 보자. 忠 의식을 전형적으로 잘 나타낸 작품으로 다음 <題感恩錄>의 첫 번째 수를 들 수 있다.

<題感恩錄> 『감은록』에 제하다

愛君心赤質神明 임금 사랑하는 참된 마음 신명께 질정할지언정  
夷險何曾二此誠 순탄하나 위험하나 어찌 이 충성 바꾼 적 있오라  
得保微生由聖德 임금님 덕으로 미천한 목숨 보전할 수 있었으니  
惟將銘感效忠貞 오직 마음에 깊이 새겨 충정을 바치리

이 시는 김약련이 적소에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기구를 보면, 직설적으로

14)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권영채의 논문-「斗庵 金若鍊의 生涯와 散文世界 - 「傳」 창작을 통한 「義理」意識의 形象化를 중심으로」,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2002, 95~133쪽 및 한의승의 논문-「『斗庵集』, 『斗庵叟隨錄』, 『斗庵題詠』을 통한 斗庵 金若鍊의 산문 연구 (1) -傳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87권, 한국한문학회, 2023, 249~256쪽 참고.

‘愛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였으며, 이 단심을 천상지하의 신명께 질정해도 참된 것이라고 뚝뚝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구에서는 자신의 충성이 평안 속이든 환란 속이든 모두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전구에서 자신의 미천한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이유를 임금(정조)의 덕으로 귀결한 것을 보면, 유배에서 겪은 고초로 인한 원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제목과 같이 임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결구에서는 정조에게 받은 은택을 마음에 깊이 새겨 자신의 충성을 모두 바치려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나타냈다. 이는 임금에게 바치는 신하로서의 충성 선서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시의 전체를 통틀어 보면 그 직설적 표현법으로 인해, 忠 의식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김약련은 忠 의식을 한 작품에서 녹여 표출하기도 하지만, 忠 의식과 孝 의식을 병렬하여 작품에서 동시에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 심지어 ‘忠孝’를 직접적으로 詩作에서 사용한다. 그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禁獄誦鄒書有感>의 두 번째 수로 들겠다.

<禁獄誦鄒書有感>                      금옥에서 『맹자』를 암송하다 느낌이 있어

天下人猶願立於 천하의 사람들이 왕의 조정에 서기를 원하는데<sup>15)</sup>  
 域中生長幸何如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여 이 얼마나 다행인가  
 無端一夕虧忠孝 무단히 하룻지녁에 충효가 어긋났으니  
 自愧當年讀聖書 당년에 성인의 책을 읽은 것이 절로 부끄럽구나

시의 제목을 보면, 김약련이 금옥에서 『맹자』 책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창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 김약련은 당시의 조정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의 시선에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정조의

15) 『孟子·梁惠王上』에 ‘今王發政施仁，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耕者皆欲耕於王之野，商賈皆欲藏於王之市，行旅皆欲出於王之途，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愬於王’라는 말이 있다.

조정을 바라보고 등용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선비들이 이렇게 동경하고 있는 조정에 참여해 본 적도 있으며, 나아가 활기찬 이 나라에서 나서 자란 자로서 이를 매우 영광스럽고 행운인 것으로 여겼다. 이 두 구에서 우리는 김약련이 신정(新政)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구에 와서 김약련의 정감 색채가 확 어두워졌다. 그 이유는 본인도 예측하지 못한 유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해 자신이 하룻저녁에 忠孝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즉, 유배라는 상황으로 인해 忠를 실천하는 공간-서울(조정), 그리고 孝를 실천하는 공간-영남과 모두 지리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은 忠孝를 실천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忠孝가 어긋났다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보면, 김약련은 忠孝의 정신적 가치를 매우 깊이 여기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결구에서 그는 그동안 『맹자』를 수십 번, 수백 번이나 읽었는데도 忠孝를 지키지 못한 것이 절로 부끄럽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충효를 어기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기를 꺾고 한탄할 만한 일인지 알 만하다.

위와 같이 忠孝라는 두 글자를 시구에서 직접 토로한 또 하나의 작품을 살펴보자.

|       |                   |
|-------|-------------------|
| <宿開城> | 개성에서 묵으며          |
| 千里關西遠 | 천 리나 먼 관서지만       |
| 銘恩若赴家 | 은혜로 새기니 집에 가는 듯   |
| 月中松巖過 | 달밤에 송악(松巖)을 지나니   |
| 日下漢城遐 | 경도인 한성과 멀리 떨어졌네   |
| 敢恨身如葉 | 있처럼 가벼운 몸 감히 한하여  |
| 堪嗟行負瑕 | 죄 뒤집어쓴 행차를 안타까워하네 |
| 平生忠孝志 | 한평생 충효에 뜻을 두었으나   |
| 萬事一朝差 | 만사가 하루아침에 어긋나 버렸네 |

이 시는 김약련이 호송 도중 개성에서 묵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언어가 직설적이면서도 묘미가 있어 잘 지은 작품이다. 먼저 수련에서는 김약련의 유배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비록 천 리나 먼 관서에서 유배 생활을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임금의 은혜로 새겨 귀가하는 듯이 관서를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함련에서는 김약련이 달밤에 개성을 지나는 것으로 자신이 수도인 한성과 더욱 멀리 떨어진 것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의 ‘日下’는 참 玩味할 만하다. 한편은 月中과 대우(對偶)하고 있고, 한편은 경사(京師)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 쌍관(雙關) 수법을 잘 쓰고 있다. 김약련에게 먼 개성까지 왔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과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의식하는 순간, 그의 심정은 경련에서 보는 것처럼 급전직하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잊처럼 가볍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배를 떠나는 자신에 대해 강렬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이어서 가장 주목할 미련에서 그는 ‘忠孝’ 두 글자를 다시 강조하여, 한평생 忠孝를 실천하고자 뜻을 세웠으나, 만사가 하루아침에 어긋난 것을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김약련이 忠孝를 자신의 일상과 개인 수양에서 실지로 행해야 하는 덕행으로 여긴 것과, 이를 한평생의 과업으로 간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산문연구에서 발견된 忠孝烈 중의 忠孝 의식이 『감은록』에서도 발견된다. 주목할 점은 『감은록』의 충효의식이 산문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다. <烈鷄傳>의 본문에 ‘時上之三年春正月也’라는 말이 있는데<sup>16)</sup> 여기서 上之三年은 정조 3년 기해년(1779)이다. 김약련의 대부분 전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그런데 『감은록』은 이보다 앞선 1776년 8월 6일부터 1777년 1월 15일까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감은록』에서 나타난 이러한 忠孝 의식이 전 작품에서 나타난 忠孝 의식보다 먼저 작품화한 것으로 보인다.

16) <烈鷄傳>, 『두암집』 605쪽.

17) 이에 『斗庵叟隨錄卷2』와 『斗庵叟隨錄卷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책에서 작품의 창작 연도가 밝혀져 있다. 특히 열녀전 류 작품의 창작 연도는 1780~180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즉, 김약련의 忠孝 의식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감은록』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로 전 작품군에서 忠孝烈로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 2)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정감의 극대화

『감은록』에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글자가 있다. 바로 夢이다. 23체의 작품 중에서, 총 5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 6, 8, 11, 15, 16번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제목을 포함하여 夢은 총 12번이나 나타났다. 이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숫자다.

이들 작품을 살펴봤을 때, 김약련의 꿈과 현실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갈등을 알 수 있다. 먼저 전형적인 기몽시(記夢詩) 류에 속한 작품을 예시로 들겠다.

<來住塞館 已十有三旬 而無夜不夢家鄉 可知有思必夢 感吟一律>

새관에 와서 머무른 지 백삼십 일이 됐는데 고향을 꿈꾸지 않은 밤이 없고 생  
각만 있으면 반드시 꿈꾸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감격해서 읊시 한 수를 읊다

看雲步月總傷神 구름 보고 달빛 아래 거니니 결국 마음만 상해  
夢裏營營織路頻 꿈속에서 설새없이 분주히 오갔다네  
道遠滿千加五百 길은 멀어 천오백 리나 되는데  
魂歸一十有三旬 닢이 돌아온 것이 백삼십 일이나 되는구나  
阿兄共枕吟雙棣 형님과 함께 베개 베고 형제간의 정을 읊조리며<sup>18)</sup>  
羣季同堂頌大春 아우들과 한 마루에서 성한 봄을 칭송했다네  
未盡歡情風拍戶 즐거운 정 맘껏 다하지 못했는데 바람이 문을 치니  
覺來惘悵恨非眞 문득 깨어나 슬피하여 진짜가 아님을 한탄한다네

이 시의 제목은 워낙 길어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김약련이 새관, 즉 적소에 온 지 백삼십 일이 됐을 때 지은 작품이며, 매일 밤에 빠짐없이 고향을 꿈꾸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약련 본인도 생각이 있어

18) 『시경』의 <상계(常棣)>를 가리키며, 형제간의 우애를 묘사한 작품이다.

만드시 꿈꾸는 것이라고 원인을 요약했다. 먼저 수련을 보면, 實에서 虛, 현실에서 夢境(夢境)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운보월(看雲步月)이라는 전고를 사용하여 현실에서의 자신은 밤낮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도저히 이러한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상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상의 꿈에 들어가 한순간에도 쉬지 않아 영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현실에서의 귀향 갈망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2~6구는 모두 욕망을 충족시켜준 夢境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합련은 비록 유배지인 삭주와 영남의 거리가 천오백 리나 떨어져 있지만, 꿈에서는 夢魂이 백삼십 일 동안 고향에 다녀왔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경련은 김약련이 귀향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즉, 만형과 함께 누워 『시경』의 <상채(常棣)> 편을 함께 읊고, 아우들과 한 마루에서 성한 봄을 즐겨 노래하는 것이다. 화기에애하며 훈훈한 화면이 저절로 눈앞에 띄며, 사람으로 하여금 꿈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겨우 마지막에 현실의 잔인한 바람이 창문을 크게 쳐서 김약련을 강제로 따뜻한 꿈에서 차가운 현실로 끌어왔다. 대비가 강렬한 것으로 깨어난 그 누구도 그 순간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시인은 역시 미련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망한 꿈에서 잠깐의 욕망 만족을 경험한 까닭에, 진실인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 거대한 슬픔과 낙담에 빠지게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의 내용은 프로이트의 꿈 해석 이론에 매우 부합해 보인다. 특히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꿈에서 실현하는 것을 보면, 프로이트가 제출한 보상 메커니즘 관점과 대응하고 있다.<sup>19)</sup> 결국, 김약련은 현실에서의 괴롭고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갈망을 보상해 주는 하나의 공간으로 꿈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의 시세계는

19) 이에 관하여 프로이트가 꿈은 願望成就(The dream as a wish fulfilment)라는 관점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는 꿈에서 충족된 소망은, 현실의 환경과 개인의식에 의해 허락되지 않아 억압된 것이 무의식의 작업을 통하여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경 역, 『꿈의 해석』(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제3장(109~118쪽)과 제7장 3절(487~506쪽)을 참조.

이러한 조치와, 꿈-현실의 강렬한 격차로 인해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운 시인의 정감을 최대화하여 전달할 수 있었다.

꿈과 현실의 교직 및 단절 현상을 표현한 다른 작품을 한 수 더 보자.

<夜夢歸家 朝起感吟>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회를 읊다

夜夜魂尋嶺外程 밤마다 녀이 영남 길을 찾아가니  
 不知身在朔州城 몸이 삭주성에 있는 줄 모르겠구나  
 逢場但說平生事 가는 곳마다 평생의 일을 얘기하지만  
 覺後還添遠客情 잠 깬 뒤엔 도리어 유배객의 마음만 더해지네  
 初若不思焉有夢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찌 꿈이 있으랴  
 終歸無驗却非誠 끝내 효험이 없으니 진실이 아니구나  
 從今莫信莊園誕 이제부터 『장자』의 허탄한 이야기를 믿지 않고  
 只把義經講利貞 오직 『회경(義經)] 잠아 원형이정(元亨利貞) 익히리라

아침에 일어나 어젯밤에 꿈꾼 내용을 회상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꿈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련과 함련이다. 이 부분을 보면, 김약련은 다시 매일 밤의 곤경을 토로하고 있다. 즉, 밤마다 꿈의 녀이 길을 따라 영남으로 떠나는 것이다. 귀향하고 싶은 심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의 자신이 실은 삭주에 있는 것도 몰랐으며, 현실인 줄 알고 가는 각 공간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 겪었던 일을 이것저것 죄다 말했다. 이러다 막상 깨고 나서 도리어 멀리 있는 유배객으로서 외로운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여기까지의 감정은 아직 평온했다면, 경련부터는 감정의 강약이 세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경련에서 김약련은 이러한 앞뒤에서 꿈과 현실 간의 전변(轉變)에 대해,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찌 꿈이 있으랴’라고 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너무 생각해서 꿈을 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약련은 다시 ‘그리 생각해 꿈을 꾸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덧붙였다. 끝내 효험도 없고 진실

도 아닐 텐데. 여기서 김약련이 꿈을 부정하고 있는 태도가 보인다. 그의 처지에서는 꿈은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없고 가짜일 뿐이다. 이러한 꿈에 대한 인식에서, 그 부정적 정감 투영도 커졌다. 미련에 와서, 그는 단호하게 이제부터는 장자의 허탄한 이야기를 믿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직 손에다 『회경(義經)』을 들고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익히겠다는 유학적 선비의 태도를 보여주었다.<sup>20)</sup> 이러한 자세는 결국 꿈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자극받은 결과이고, 꿈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앞 인용문과 같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따르면, 여전히 무의식이 현실에서 억압된 자신에게 꿈을 조성해주는 보상적 행위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에서 소망이 충족되고 거기서 즐길수록, 이에 따른 覺夢 후의 실망과 공허함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김약련의 마지막 태도도 이에 해당한다. 그는 심지어 꿈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夢境과 현실을 분명하게 둘로 나누려 하며,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에서 보여주는 철학적 사유까지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대신에 『주역』에 따라 원형이정을 익히는 것을 현실 생활의 해결 방안으로 삼았다. 결국은 자신의 무의식을 더 이상 방종하지 않고 꿈과 현실의 경계선을 타파하려 하고, 혼동하는 꿈을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김약련은 꿈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대립시켜 자신의 작품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운 심정을 한시 작품에서 극대화하였다. 즉, 꿈과 현실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서술 방법은 짙막한 시구에서 감정을 확대하여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소망을 꿈을 통해 실현하게 했으나, 꿈을 깬 후의 낙담과 공허함으로 꿈의 치유성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다시 직면할 때 더욱 본인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므로 김약련의 감정은 꿈과 현실에서 양극화되는 것이다. 작품의 시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정감의 충격력이 더욱 커지는 데 반해, 김약련의 의식적 측면

20) 『주역』 「건괘(乾卦)」에서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乾 元亨利貞]”라고 하여 사물에 적용되는 하늘의 네 가지 원리로 설명하였다.

에 있어서는 꿈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실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3) 『맹자』 崇拜와 한시에서의 문체 수용

꿈을 외면하고 현실만 바라보겠다고 해서 불안하고 괴로운 심정이 저절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밤만 되면 꿈이 매일 저절로 나타나는 것, 타지에서 충효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김약련에게 생활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다. 달콤한 꿈으로 인한 힘겨움과 사대부로서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김약련은 스스로 성인의 책-『맹자』를 해결안으로 찾아냈으며, 『맹자』에 관한 한시를 창작했다. 그는 이들 한시 작품에서 『맹자』의 가치를 높이 강조하고, 『맹자』에서 의미깊은 말을 차용하여 직접 작품에다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禁獄誦鄒書有感>의 두 번째 수에 나타난 충효의식에 대해 거론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시는 김약련의 『맹자』에 대한 숭배(崇拜) 태도와 인식을 보여 주므로 부연설명을 하겠다. 시 제목에 있는 금옥을 통해, 목숨의安危와 가계 될 거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김약련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김약련이 추서(鄒書), 즉 『맹자』를 외우고 있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 그가 『맹자』에 얼마나 크게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 시의 내용에서는 “의와 인은 임금과 아버이를 뒤로 하지 않는다는(義仁未有後君親)<sup>21)</sup>, 이 말을 일찍이 옛 성인에게 들었다네(此語曾聞古聖人)”라고 한 바가 있다. 앞 구에서는 김약련이 직접 『孟子·梁惠王上』의 명구(名句)를 갖고 와 시에다 쓰는 것이고, 뒤 구에서는 古聖人 맹자에 대한 경앙(敬仰)을 느낄 수 있다.

이보다 더욱 강렬하게 『맹자』를 성스러운 책으로 여기고, 높이 받들어 숭배하는 김약련의 의식을 담아낸 하나의 시가 있다. 이 시는 『감은록』에서 편폭이 가장 긴 작품이며, 유일한 배율이다. 오언이고 총 48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

21) 『孟子·梁惠王上』 맹자(孟子)의 말에 “인하면서 자기 아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다.[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라고 하였다.

의 제목은 ‘『맹자』를 읽다(讀孟子)’인데, 『맹자』를 주제로 내용을 전개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 시의 전반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  |
|-------|--|
| <讀孟子> | 『맹자』를 읽고                                 |
| 孟子書七篇 | 『맹자』 책 일곱 편에                             |
| 滿篇經濟策 | 편마다 온통 경세제민의 계책이로다                       |
| ..... | .....                                    |
| 熟處猶難忘 | 오래 익힌 것은 그래도 잊기 어려우니 <sup>22)</sup>      |
| 悅焉敢不釋 | 좋아하는 것 어찌 감히 찾지 않겠는가                     |
| ..... | .....                                    |
| 借書崔氏子 | 최씨 집안의 자제에게 책 빌려                         |
| 整襟致三復 | 옷깃을 여미고 거듭 반복해 읽었다네                      |
| 古聖豈相欺 | 옛 성인이 어찌 우릴 속일꼬                          |
| 遺訓儘可服 | 남긴 가르침 다 따를 만하여라                         |
| 用之濟宜兼 | 쓰임을 받으면 마땅히 천하를 구제해야 하고                  |
| 否則善必獨 | 그렇지 않으면 필히 내 몸을 선하게 해야 하리 <sup>23)</sup> |
| 豈復論窮達 | 어찌 다시 곤궁과 영달을 논하겠는가                      |
| 且須勤咀嚼 | 우선 부지런히 음미해야 하리                          |
| 不願膏粱飽 | 좋은 고기와 곡식으로 배부르기 원하지 않고                  |
| 不願文繡飾 | 수놓은 비단옷으로 꾸미기도 원하지 않으리라                  |
| 味之窮朝暮 |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책을 음미하며                      |
| 欣然忘寂寞 | 흔연히 적막을 잊고 있노라                           |

22) 오래...어려우니: 《退溪集 卷14 答李叔巖》에서 퇴계가 율곡에게 편지를 보내 “새로 좋아하게 된 것은 달지 않은 법이고, 오래도록 익힌 것은 잊기 어려운 법이다.[新嗜靡甘, 熟處難忘.]”라고 하였다.

23) 쓰임을...하리: 이 구절에는 《孟子·盡心上》에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한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고 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부를 시작하는 구절에서 김약련은 독자들에게 단도직입으로 『맹자』의 칠 편이 편마다 경세제민의 계책이라고 개괄했다. 이어서 그는 오래 익힌 것도 잊기 힘들지만, 어찌 감히 좋아하는 것(이 책)을 찾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맹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최씨 집안의 자제에게 『맹자』 책을 빌렸으며, 읽기 전에 선비답게 의관(衣冠)을 정리하고 읽었다. 이어서 맹자가 남긴 가르침은 모두 따를 만하고 현명한 것이며, 우리를 속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맹자가 가르쳐준 곤궁과 영달에 관한 도리는 너무나 유명한 가르침이다. 이에 김약련은 역시 시에다 녹여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고결한 지조를 표현하였다. 이에 관한 부분은 인용문의 마지막 여덟 구에 해당한다. 즉, 쓰임을 받으면 천하까지 겸하여 구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궁달(窮達)을 다시 논하지도 않고, 오직 부지런히 『맹자』를 음미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구에서는 진수성찬, 금의화복(錦衣華服)을 비롯한 부귀영화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으며, 다시 『맹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미하여 적막을 저절로 잇는다고 하며, 그 효용성과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김약련의 『맹자』 숭배와 『맹자』 사랑이 일목요연하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앞부분에 이어지는 이 시의 후반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맹자』의 문답형 문체까지 수용하여 한시에서 대화체 구조를 세웠다.

|       |  |
|-------|--|
| 有客來謂余 | 어떤 손님이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
| 讀此更何欲 | 이를 읽어 다시 무엇을 할꼬                            |
| 一歲摘蓮桂 | 한 해에 연방(蓮榜)과 계방(桂榜)을 다 붙였으니 <sup>24)</sup> |

24) 한 해에...붙였으니: 1774년 김약련이 45세 때, 봄에 연방(蓮榜) 즉 소과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겨울에 계방(桂榜) 즉 대과(大科) 중광시(增廣試) 문과(文科)에 합격한 것을 가리킨다.

|       |                          |
|-------|--------------------------|
| 未必非學力 | 반드시 학문의 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
| 若無分外榮 | 만약 과분한 영광이 없었다면          |
| 詎有塞西謫 | 어찌 변세 서쪽으로 귀양을 일 있었으랴라고  |
| 聞言蹶然坐 |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아          |
| 答曰子何惑 | 대답했다 자네는 어찌 의심하는가        |
| 我今遭明時 | 나는 지금 밝은 시대를 만나          |
| 只恨工未極 | 공부를 다하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이라네  |
| 況又學聖書 | 하물며 또한 성현의 책을 배우는 것이     |
| 豈爲求人爵 | 어찌 인작(人爵)을 구하기 위해서이라     |
| 服膺宜隨處 | 가슴에 새겨두고 마땅히 처지에 따라      |
| 夷險期無數 | 순탄하나 위험하나 변함이 없어야 하리     |
| 君言固有意 | 그대 말이 진실로 뜻이 있어도         |
| 此書已成癖 | 이 책은 이미 내 버릇이 되었다네라고     |
| 長讀孟子曰 | 맹자왈을 크게 읽어               |
| 任他傍人噓 | 주위 사람들 웃음소리 감당하리라        |

이 후반부는 문답형에 따라 위와 같이 문과 답,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는 어떤 손님이 와서 김약련의 조우(遭遇)에 대해 비꼬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 손님은 김약련에게 유배를 당해 『맹자』를 읽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으며, 한 해에 좋은 과거 성적을 두 번이나 연달아 거둔 것이 비록 재주가 있으나, ‘분수 외의 영광(分外榮)’이 있어 변세 서쪽(삭주)에 온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즉, 비록 네가 재주가 있으나, ‘분수에 넘치는 영광’이 있어, 유배 당한 거라고 한 것이다. 반어법이며, 모욕적인 도발 태도이다. 이는 김약련의 문답형 문체에 대한 수용으로 그 장면의 긴장감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자적 질문을 담은 반어 말투에 대해, 김약련은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을 한시에서 대답했다. 대답의 핵심은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자신의 지향(志向)과 지조의 굳건함이다. 다른 하나는 『맹자』에 대한 견수(堅守)이다. 먼저 자신의 지향과 지조에 대해서, 김약련은 비록 유배를 당했으나 오직工夫를 다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밝혔으며, 성현의 책을 배우

는 것이 인작(人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처지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줬다. 『맹자』에 대한 견수에 대해서, 김약련은 직접 『맹자』가 자신의 벽호(癖好)가 된다고 신고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에 직접 ‘孟子曰’을 사용한 것을 보면, 『맹자』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다. ‘孟子曰’을 크게 읽어 타인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겠다는 말로 이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의 굳건한 『맹자』 숭배와 선비로서의 지조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김약련은 불안한 상황에서, 『맹자』를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여기고 반복적으로 읽었으며, 나아가 이를 한시의 주제로 창작하였다. 이들 시에서 『맹자』의 명구를 인용하고 맹자에 대한 극찬과 숭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시들에는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성품, 굳건한 지조 건지의 모습도 많이 담겨있다. 이는 결국은 김약련이 현실과 꿈의 격차로 생긴 괴로움, 금욕과 적소에서의 불안과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낸 하나의 해결안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김약련에게는 유배지에서 『맹자』의 존재가 정신적 의지처였으며, 『맹자』 읽기라는 행위 자체가 사대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김약련의 『맹자』 숭배의식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난 것이며, 심지어 『맹자』의 문답형 문체를 한시에서 수용하여 대화체 내용을 담은 한시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문답형 문체를 통하여 한시에서 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장면의 긴장감과 사실성을 더해줬다는 것이다.

#### 4) 독자를 배려한 제목 명명법

한시는 짧고 함축적인 문학 장르이므로, 작품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감은록』에 수록된 작품들의 제목을 볼 때, 직관적으로 느껴진 특징들이 있다. 그중의 한 특징점은 바로 과격적으로 제목을 길게 붙였다는 점이다. 제목을 길게 붙인 예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감은록』에서 긴 제목으로 명명한 작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來往塞館 已十有三旬 而無夜不夢家鄉 可知有思必夢 感吟一律</li> <li>2. 城上一條路 是余累月暢鬱之地也 將歸不可不一登 遂往見之 爲吟一絕</li> <li>3. 姜生最初相知 而中間貽阻 今方還鄉 而未卽相面 故吟送一絕</li> </ol> |
|---|

이들 시의 제목이 긴 이유는 사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연에 대한 설명은 결국 그 시를 창작한 배경과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1번의 경우는 김약련이 새관에 온 지 백삼십 일이 됐는데, 고향을 꿈꾸지 않은 밤이 하루도 없고 생각만 하면 반드시 꿈을 꾸었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감격해서 읊시 한 수를 지었다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2번은 김약련이 성 위의 한 줄기 길은 자신이 몇 달 동안 울적함을 풀어내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곧 귀가할 거라 한번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 마침내 가서 보고 그것을 위하여 절구 한 수를 읊는다고 한 것이다. 3번은 적소에서 만난 강생은 최초로 알고 지낸 사이인데 중간에 소식이 끊겼으나, 귀향하기 전에 얼굴을 마주할 수 없어 절구를 한 수를 지어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목이 길게 나타난 이유는 어떤 구체적 사연을 독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며, 작품의 창작배경과 창작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김약련이 독자를 배려하는 작시 의식을 가지고 한시를 창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시를 창작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알려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감은록』의 시 제목에서 또 하나의 현저한 특징은 제목에서 작품의 형식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시인들은 자신의 한시 제목을 멋있게 지으려고 하거나 함축하고 간략하게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김약련은 제목을 길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목에서 그 시의 형식을 제목에다 밝혔으며, 몇 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강조하였다. 위의 3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작품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 표5 『감은록』의 시 제목에서 형식을 설명한 작품

|   |
|---|
| 獨坐無聊吟成一律; 坐念夜夢 吟成二律; 孤坐一室 消日無資 吟成一律一絶; 夜見燈花<br>感吟一絶; 立春夜無寐 感成一律; 除夕在明 客懷倍切 遂吟一律; 坐念家事 吟成一律; 聞<br>賑關到府 喜吟一絶; 阻雪龜城天陽村 吟成一絶. |
|---|

앞의 3편과 합치면, 총 12題에서 형식에 대한 설명이 제목의 명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작품 수에 대한 설명까지 제목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 이는 김약련이 시를 창작할 때 독자를 생각하여 그 시의 성격을 명료하게 말해 준 것이다.

종합해 보면, 김약련은 작시할 때, 독자의 존재를 예상하여 그들에게 친근하게 시 창작의 사연이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를 담는 용기로 제목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연이 있을 때마다 김약련이 시를 창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목을 그릇으로 이용하여 형식 설명을 가하는 것은 『감은록』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감은록』 외 한시 작품의 경우 『감은록』처럼 제목에 형식 설명을 덧붙인 것이 두 군데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김약련이 『감은록』 소재 한시를 통해 자신의 유배 체험과 소회(所懷)를 타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김약련 한시 작품에 대한 첫 논의로서, 김약련 전체 한시를 개관한 후 김약련에게 큰 의미를 지닌 『감은록』 소재 한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약련의 한시 작품은 총 79題 107首로,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적고, 그 구성은 詩(『감은록』 외 한시 작품+ 『감은록』), 輓, 諫辭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감은록』을 제외한 한시 작품의 경우 형식적 면에서 오언배율과 칠

언배율의 형식을 취해 김약련이 장편시를 즐겨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적 면에서 음풍영월이나 영물(詠物)의 작품이 전혀 없으며, 그 대신에 자신에게 의미를 지닌 사건, 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뇌사 작품이 별로 많지 않고 특히 여성을 위해 지은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약련이 창작한 두 편의 뇌사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은록』의 경우에는 최초로 별도의 책자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책은 김약련이 유배 생활 속에서 임금(정조)에게 감사하거나 유배 생활 중에 일어난 느낌의 상세함을 한시로 기록한 시들의 모음이라 할 수 있다. 그 주목적은 유배를 오간 전말을 서술하고, 목숨을 구해 준 정조를 칭송하는 데에 있다. 총 23題 31首의 『감은록』에서는 오언과 칠언, 절구와 율시가 비교적 고르게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讀孟子』는 유일한 장편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어서 『감은록』 소재 한시 작품의 시적 양상 및 의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은록』에는 김약련의 忠孝의식이 강렬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忠孝의식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기존에 주목한 김약련 전(傳) 작품에 나타난 忠孝의식보다 먼저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김약련은 『감은록』에서 꿈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대립시켰으며,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서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짙막한 시구에서 감정을 확대하여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작품의 시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정감의 강도를 더욱 크게 하였으나, 김약련의 의식적 측면에 있어서는 꿈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실만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김약련은 『감은록』에서 『맹자』에 대한 숭배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맹자』를 시의 주제로 선정하여 『맹자』의 문답형 문체까지 수용하였다. 『맹자』의 문답형 문체를 수용하여 한시 작품에서 대화체로 구현하는 것은

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장면에 긴장감과 사실성을 더해줄 수 있다. 그리고 『맹자』에 대한 강조는 김약련이 유배에서의 고통 해소 및 사대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맹자』를 정신적 의지처와 현실의 해결안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감은록』 소재 한시는 제목을 파격적으로 길게 붙였고, 시의 형식과 작품 수에 대한 설명을 제목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자신의 시를 읽을 독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시 창작의 사연이나 이유, 혹은 시의 형식과 작품 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약련은 이처럼 한시의 제목을 정보를 담는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독자와의 거리를 축소하는 동시에 작품의 사상 감정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감은록』의 이런 특성은 『감은록』 이외의 여타 한시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약련이 유배라는 비일상적 체험,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인해 생긴 여러 소회(所懷)를 타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김약련의 유배시를 엮은 『감은록』의 시적 양상과 의의만을 연구한 것이라 김약련의 전체 한시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金若鍊, 『斗庵集』, 『韓國文集叢刊』속9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2.
- 金若鍊, 『斗庵叟隨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강지혜, 「정조 즉위년 소론의 사도세자 신원소 제기와 정조의 대응 - 『친국일기(親鞫日記)』의 심문기록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1호, 전북사학회, 2017, 65~79쪽.  
(DOI : 10.28975/jha.2017.10.51.057)
- 권영채, 「斗庵 金若鍊의 生涯와 散文世界 - 「傳」창작을 통한 ‘義理’意識의 形象化를 중심으로」, 『安東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2002, 1~138쪽.
- 김경미, 「관계로서의 동물, 동물의 문학적 재현 - 조선후기 ‘동물전(動物傳)’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37~63쪽.  
(DOI : 10.29190/JEKLL.2020.51.37)
- 김운조, 「뇌(詠)의 문체적 특성과 문학사에서의 양상」, 『대동한문학』 32권, 대동한문학회, 2010, 105~134쪽.
- 박지애, 「내방가사를 통한 여성의 자기표현과 부부관계의 구성 - 『두암제영』 소재 노부탄과 답부사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 4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34~53쪽.
- 백두현, 「두암(斗菴) 김약련(金若鍊)의 한글 가사와 시조 - 노부탄(老婦歎), 답부사(答婦詞), 과 폐탄(科弊歎), 소학가(小學歌), 육가(六歌)」, 『어문론총』 6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313~358쪽.  
(DOI : 10.22784/eomun.2015.63.313)
- 손대현, 「<科弊歎>의 서술 양상과 문학적 가치」, 『語文學』 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215~236쪽.  
(DOI : 10.37967/emh.2018.03.139.215)
- \_\_\_\_\_, 「<小學歌>의 『小學』 수용과 문학적 의미」, 『어문학』 135집, 한국어문학회, 2017, 135~158쪽.  
(DOI : 10.37967/emh.2017.03.135.135)
- \_\_\_\_\_, 「『두암제영(斗庵題詠)』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적 가치」, 『어문론총』 63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127~151쪽.

(DOI : 10.22784/eomun.2015.63.127)

- 이상원, 「〈두암육가〉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  
가문화학회, 2017, 181~202쪽.
- ,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삶과 부부의 기억 - 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  
련의 답부사」, 『한국시가문화연구』 42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185~  
211쪽.
- 이종호, 『열녀와 의리-조선후기 안동권 열녀전의 이해』, 북코리아, 2012.
- 조대경 역, 『꿈의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한의승, 「『斗庵集』·『斗庵叟隨錄』·『斗庵題詠』을 통한 斗庵 金若鍊의 산문 연구(1) -  
傳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87권, 한국한문학회, 2023, 241~274쪽.
- 황만기, 「영주의 선비정신 형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과예술』 제49집, 한국문  
학과예술연구소, 2024, 221~249쪽.

| Abstract |

## A Study on Kim Yak-ryeon's 『Gameun-rok(感恩錄)』

Hu, Xiaoyun

Chosun Univ. PH.D.Candidate

This paper analyzes the poetic aspects and significance of the Chinese poetry of Kim Yak-ryeon, focusing on his collection of poems written during exile, 『Gameun-rok(感恩錄)』. This work, previously overlooked in existing research, is the central focus.

First, before delving into the main discussion,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Kim Yak-ryeon's entire body of Chinese poetry. Quantitatively, his complete poetic works are relatively few. Additionally, Kim Yak-ryeon preferred writing long poems (五言排律) and thematically focused on events, dates, and figures of personal significance, completely eschewing works on topics like "singing about the wind and moonlight(吟風詠月)", or "singing about things(詠物)".

The 『Gameun-rok(感恩錄)』 originally existed as a separate volume, and its primary purpose was to narrate the full story of his exile and praise the king's grace. The first characteristic of the poems in 『Gameun-rok(感恩錄)』 is the strong projection of Kim Yak-ryeon's loyalty and filial piety(忠孝意識). The works included here were composed before the "Jeon(傳, biography)" works that have received attention in previous research on Kim Yak-ryeon. These poem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demonstrate that his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later expanded into a fervent loyalty and filial devotion(忠孝烈) in the subsequently composed "Jeon" works. Second, in 『Gameun-rok』(感恩錄), Kim Yak-ryeon used a narrative method that transcended the boundary between two spaces: dreams and reality.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maximize and convey his emotions to readers through short poetic lines. Third, the poems in 『Gameun-rok』(感恩錄) reveal a reverence for 『Mencius(孟子)』, and he even adopted the question-and-answer style of 『Mencius(孟子)』 into his Chinese poems. The former indicates that Kim Yak-ryeon regarded 『Mencius(孟子)』 as a source of spiritual support and a solution to his reality, seeking to alleviate the pain of exile and preserve his identity as a Confucian scholar(士大夫). The latter shows that the question-and-answer style of 『Mencius(孟子)』 allowed him to implement dialogue in his poems, realistically describing an event while adding tension to the scene. Fourth, the poems in 『Gameun-rok』(感恩錄) are characterized by their unusually long titles and the inclusion of explanations about the form and number of the poems. This was a conscious act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readers and utilizing titles as a device to contain information. This helped him reduce the distance from the reader and more easily convey the thoughts and emotions within the works. Furthermo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titles in 『Gameun-rok』(感恩錄) are not commonly found in his other Chinese poems, suggesting that Kim Yak-ryeon wanted to share his unusual experience of exile and the various thoughts that arose from it with others.

**Key words** : Kim Yak-ryeon, Gameun-rok, Chinese poetry, Banishment, Long poem,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Sense of Space, Sense of Worship

투고일 : 2025년 7월 9일 심사기간 : 8월 10일 - 8월 20일 게재확정일 : 8월 21일